

2004년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동향분석실
wblee@kiet.re.kr

〈요 약〉

2003년 하반기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는 2004년 들어서 중국의 긴축 기조 시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동 정세 불안과 그에 따른 고유가 지속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까지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도 내수(소비 및 설비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보였으나,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5.4%의 성장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실질GDP는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의 호조세로 인하여 상반기에 5.4%, 하반기에 5.6% 성장함으로써 연간 5.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중국의 긴축기조, 미국의 금리 인상, 국제유가의 급등세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나, 설비투자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도 4분기경에는 회복됨으로써 성장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무역수지(수출입차)는 수출이 대중국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세와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IT제품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하반기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안정적인 성장유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미시적인 조정정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경제 여건의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수출 촉진보다는 내수 회복을 위한 경제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제도의 개선, 배드뱅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등의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전한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고용의 확대를 위해 기업투자의 활성화, 공공분야의 고용확대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외 악재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완충장치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된다.

1.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대외 경제여건 변화

2003년 하반기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는 2004년 들어서 중국의 긴축 기조 시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동 정세 불안과 그에 따른 고유가 지속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까지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진국 경제는 2004년 중에 2003년(OECD 기준 2.2%)보다 높은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경제도 최소 7%대 이상(정부 9.2% 예상)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 200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추세선에 근접하는 4%대를 기록하면서 2003년(3.9%)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4~5%의 증가율(2002년 3%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교역은 2004년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성장과 중국 등 개도국들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증가율이 6~7%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각국이 금리 인상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금리 인하나 정책을 견지해 온 미국 연준은 최근, 고용 증가와 제조업 수주액 호조 등

예상을 상회하는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경기호조와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고유가에 따른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재연되면서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고유가 기조는 실제 원유 수급 사정을 반영하기보다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향후 수급 여건에 대한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그 향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동 정세만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초반까지 나타난 국제상품가격의 급등세는 세계경기 회복세의 확산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비철금속과 곡물 등 전 품목에 걸쳐 나타났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국가들이 긴축 정책을 이용해 경기 연착륙을 시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2003				2004				2005			
	IMF	WB	EIU	OECD	IMF	WB	EIU	OECD	IMF	WB	EIU	OECD
전세계 ¹⁾	3.9	3.7	3.8	-	4.6	4.6	4.7	-	4.4	4.1	4.1	-
OECD	2.1	2.0	2.1	2.2	3.5	3.1	3.2	3.4	3.1	2.6	2.5	3.3
(미 국)	3.1				4.6	4.6	4.5	4.7	3.9	3.2	3.2	3.7
(일 본)	2.5				3.4	3.1	3.1	3.0	1.9	1.4	1.3	2.8
(유 로)	0.4				1.7	1.7	1.6	1.6	2.3	2.3	2.0	2.4
아시아 ²⁾	7.8	7.7	5.6	-	7.4	7.4	6.4	-	7.0	6.7	6.0	-
(중 국)	9.1				8.5	-	9.4	8.3	8.0	-	8.1	7.8
체 제 전환국 ³⁾	4.5	5.5	-	-	4.5	4.9	-	-	4.4	4.8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3.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4. 3.EIU, *Viewswire*, 2004. 4.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4. 5.

주 : 1) Purchasing Power Parity 적용 기준.

2) EIU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대상 지역.

3) IMF는 중동구, WB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가 대상 지역.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금년 평균유가는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약 30달러/배럴 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평균유가가 30달러 선이 될 경우 이는 작년 평균에 비해 약 12% 상승한 가격이다. 2000년 산업연관표로 추정할 때 유가 10% 상승시, 제조업 중간투입비용 0.98%, 전산업 중간투입비용 0.76%의 직접적인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또 수출은 0.18% 감소, 수입 0.64% 증가 효과, GDP성장률은 0.15% 포인트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수출입 및 성장률 효과는 한은 추정치).

따라서 금년 평균 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30달러로 전망시, (전년 대비) 전산업 중간투입비용 0.85%, 제조업 중간투입비용 1.1% 상승, 수출 -0.21% 감소, 수입 0.74% 증가, GDP 성장률 -0.17% 포인트 감소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2) 국내 경제여건 변화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소비침체로 내수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유가 등에 경제성장률이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최근 들어 미국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국

내의 수출과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국내 경기가 상승 탄력을 받게 되어 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금리도 완만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하반기에는 유가 상승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환율상승을 주도해 오던 외국인 주식 순매도 물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 역시 상향 추세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달러화 가치의 점진적인 하락도 점쳐지고 있어 원화 환율은 현 수준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 현 경기상황과 부문별 경제전망

(1) 현재의 경기상황

2003년에 3.1%의 낮은 성장에 그쳤던 국내경제는 2004년 1분기에는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5.3%라는 잠재성장률 근처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완만하나마 회복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도품목의 국내 산업연관효과가 낮아 수출 호조가 전체 경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 설비

투자 등 일부 선행지표가 비교적 높은 증가세로 돌아서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내수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생산은 수출업종의 호조에 힘입어 2003년 말경부터 대체로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3년 3분기 이래 상승 추세로 2004년 1분기에는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수출은 대중국 수출의 급신장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수입도 비교적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경기 침체로 내수용 수입은 부진하여 수출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낮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사상 최고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 부문별 경제전망

2004년 실질GDP는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의 호조세로 인하여 상반기에 5.4%, 하반기에 5.6% 성장함으로써 연간 5.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의 3.1% 성장률에 비교하면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내수와 수출부문간의 성장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체감 경기는 전망치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에는 중국의 긴축기조,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의 급등세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나, 설비투자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상반기 중 크게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도 4분기경에는 회복됨으로써 성장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지출은 2004년 상반기에 0.3% 성장하여 미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이후부터 국내외 경기 회복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4.8% 성장하여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 연간 전체로는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침체로 고정투자는 2004년 상반기에 3.2% 정도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며, 하반기

에는 좀 더 회복되어 5.1% 성장하면서, 연간 전체로는 4.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2004년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는 2004년 상반기에 3.9%, 하반기에 9.8% 성장하여 연간 전체로 6.8%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2003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반락효과와 부동산투기억제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건설투자는 상하반기 공히 3% 정도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여 연간 전체로 3.1%의 성장이 예상된다.

〈표 2〉 2004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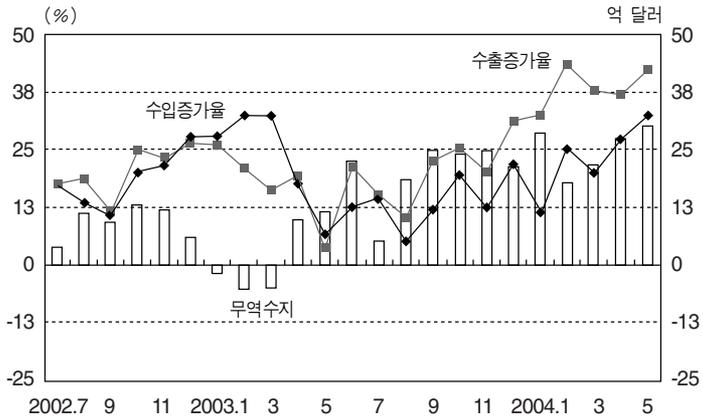
	2003	2004			
	연 간	1/4(실적)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 성장률	3.1	5.3	5.4	5.6	5.5
민간소비	-1.4	-1.4	0.3	4.8	2.6
총고정자본형성	3.6	1.8	3.2	5.1	4.2
(설비투자)	-1.5	-0.3	3.9	9.8	6.8
(건설투자)	7.6	4.1	3.1	3.1	3.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5.7	26.9	23.9	12.9	18.0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9.7	11.8	14.1	13.9	14.0
통관기준 수출입					
수출(억 달러)	1,938	593	1,223	1,225	2,448
(증가율)	(19.3)	(37.8)	(37.2)	(17.0)	(26.3)
수입(억 달러)	1,788	526	1,078	1,140	2,218
(증가율)	(17.6)	(19.0)	(25.5)	(22.7)	(24.1)
수출입차(억 달러)	150	67	144	85	229

2004년 무역수지 (수출입차)는 수출이 대중국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세와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IT제품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흑자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폭발적인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1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에는 그 규모가 85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은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해외수요 둔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둔화될 것인 데 반해, 수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 국내경기의 회복, 작년 하반기 낮은 수입증가율에 따른 기술적 반등요인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내수의 회복이 기대되는 데다 유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기 회복세가 완만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그림 1〉 최근 수출입 추이



것으로 추정되나 원자재, 유가 등 공급측면에서의 상승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물가상승률은 3.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경제정책 방향

2004년 상반기 중 한국경제는 2003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호조가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빠른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5.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중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근처의 수준에 이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왜곡된 형태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긴축정책, 국제유가의 급등, 국제금리의 상승 움직임 등 해외부문의 악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현재 이렇게 해외부문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구조가 점점 더 수출호조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또한 세계적인 경제회복 움직임도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경제정책을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해 온 측면에도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2004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극단적인 왜곡된 성장구조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비교적 해외부문과 내수부문이 고루 성장에 기여하는 형태의

성장추세를 보이며 5.6% 정도의 성장세를 달성하고 연간 전체로도 5.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가 정부의 투자촉진책의 지속, 수출호조에 따른 영향, 오랫동안 부진하던 내수의 회복 등에 힘입어 먼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소비도 지금까지의 마이너스 성장세는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지금까지 성장세를 주도했던 해외부문은 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4년 하반기의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역시 “안정적인 성장 유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많은 분야에서의 미시적인 조정정책을

<표 3> 하반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세 • 반도체 등 세계 IT산업의 회복 • 중국의 성장세 지속과 이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가의 효과 • 추경 편성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가능성 • 신용카드 불안 진정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완만한 회복 • 정치적 불안요인 해소 등에 따른 기업의 설비 투자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긴축기조,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생산, 수출 차질과 외국인투자 위축 •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투자 재원의 해외유출 •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건설투자의 낮은 증가세 •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 압력 • 물가상승과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특 집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경제 여건의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여건의 조성보다는 내수 회복을 위한 경제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제도의 획기적 개선, 배드뱅크 제도의 효율적 운용 등의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전한 경제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고용의 확대를 위해 기업투자의 활성화, 공공분야의 고용확대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대외 악재인 중국의 긴축정책, 유가의 상승, 국제금리 상승 움직임 등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그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